

<이명호 무역학> 2017 7급 관세직 무역학 총평

이전에는 간혹 지방직 국세통상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무역학’을 시험 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오직 관세직 7급 공무원 시험에만 ‘무역학’이 시험과목을 채택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렬 수험생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과목이고, 심지어는 관세직 9급 공무원 수험생들도 보지 않는 과목입니다. 그러다보니 수험용 책도 많이 없고, 강의도 없습니다. 사실상 저의 부족한 책과 강의가 ‘전부’인 것이 ‘무역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학 시험이 끝나고 나면 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총평을 쓰게 되면, ‘쉽다, 어렵다’를 밝혀야만 할 부담감을 느끼지만, 저는 그렇게 총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험생에게 ‘쉬운’ 시험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7년 관세직 7급 공무원을 선출하는 시험(2017년 8월 26일 시행)에서의 ‘무역학’은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나?> (가책형 기준)

구분	출제된 문제	문항 수
무역이론	5. WTO의 GATS 협정 상세 8. 비교생산비설과 상호수요설 11. 교역조건 14. 스톨퍼-사무엘슨 정리	4
무역실무	1. 관세의 종류(일반특혜관세) 2. 원산지결정기준 6. UCP 600의 운송 규정 9. 매매계약 기본 조건 10. CISG의 승낙 규정 17. Incoterms 2010의 특징 18. 항공화물운송장의 성격 19. 무역대금 결제방식(CAD) 20. UCP 600의 양도가능신용장 규정	9
국제금융	7. 국제수지계정 항목 15. 내부적 환위험 관리 전략	2
국제경영	3. ODM의 정의 4. 국제마케팅 믹스 전략 12. 펄뮤터의 국제화 진입방식 13. 라이선싱 16. 가격설정 방식	5
총 계		20

<어떻게 출제되었나?>

1. '무역이론' 부분과 '국제경영' 부분은 이전에 치렀던 시험과 출제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올해 시험의 특징은 '무역실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그만큼 '국제금융' 문제가 적게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역실무 관련 문제가 20문항의 거의 반에 가까운 9문항이 출제되었으니, 그 중요도를 알만 합니다. '관세' 부분도 역시 무역학의 한 범위이므로 가끔 출제되지만, 올해엔 관세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2. 실제의 무역실무는 많은 부분이 '관행'으로 이루어지지만, 시험까지 그렇게 모호하게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관행을 규범화한 UCP 600, Incoterms 2010, CISG 등 국제규범을 근거로 시험을 출제하게 됩니다. 올해도 역시나 UCP 600을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으로 내세운 문제가 2문항, Incoterms 2010의 원문이 출제된 문제가 1문항, CISG를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으로 내세운 문제가 1문항이었습니다. 즉 국제규범의 '원문' 학습을 요구하는 문제가 4문제나 되었습니다.
3. 무역학 문제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문제의 길이'는 대부분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짧은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는 많지 않은데,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8번 문제와 같은 경우, 역시 문제의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투입량, 비교우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 짧은 문제를 보며 '리카도의 비교우위론(비교생산비설)' 문제라고 단정 지었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비교우위 파악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밀의 상호수요설'까지 떠올려야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4. '기본적인' 문제를 피하려는 모습이 여러 문제에 있었습니다. 헥셔-오린 제1명제나 제2명제를 단순히 묻기 보다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스톨퍼-사뮤엘슨 정리'가 출제되었습니다. GATS가 WTO 협정 안에 있는 것이냐를 묻는 단순한 문제를 벗어나 GATS(서비스 무역협정)에서 규정된 서비스 공급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OEM 보다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ODM이 출제되었습니다. 무역학 공부를 할 때 '조금씩 더 나아가고' 조금씩 더 응용해 나가는 형태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2017 국가직 7급 무역학(가책형) (아모르이그잼학원 이명호 교수)

1.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는?

- | | |
|----------|--------|
| ① 덤핑방지관세 | ② 상계관세 |
| ③ 일반특혜관세 | ④ 할당관세 |

1. 정답 ③

해설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를 일반특혜관세(GSP)라 한다. 일반특혜관세는 UNCTAD(UN 무역개발회의)에서 남북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197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혜관

해설 : 마케팅믹스란 기업이 목표시장에서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가능한 마케팅 수단들의 집합을 말한다.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제품의 매출, 수요, 고객이 반응과 태도에 영향을 주기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케팅 믹스의 네 가지 변수, 즉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촉진(Promotion), 유통(Place)으로 구성된다. 국제마케팅믹스 전략에는 국제제품전략, 국제가격전략, 국제촉진전략, 국제유통전략이 포함되지만, 국제인사관리전략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토 내에 주재하는 경우	상업적 주재	자본의 이동(공급주체 이동)
	자연인 주재	노동의 이동(생산요소 이동)

6.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의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동일한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경우 본선 선적을 증명하는 복수의 운송서류에 비록 각각 다른 선적일이나 선적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목적지를 명시하고 있으면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②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바지에 선적되었음이 선하증권에 증명된 때에는 환적될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선하증권도 수리될 수 있다.
- ③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 원본 전통(full set)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수익자는 송화인용 원본만을 제시해도 된다.
- ④ 신용장의 운송서류 조건에 '무사고 본선적재'의 명시가 있는 경우 은행에 제시되는 운송서류에는 반드시 무사고(clean)라는 용어가 기재되어야 한다.

6. 정답 ④

해설 : UCP 600 제27조에 따르면, 은행은 무사고 운송서류(a clean transport document, 무고장 운송서류)만 수리한다. 다만 무사고 운송서류란 화물이나 포장의 하자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 것일 뿐, 무사고(clean)라는 용어가 기재될 필요는 없다. 심지어는 신용장의 운송서류 조건에 '무사고 본선적재'의 명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운송서류에는 무사고(clean)이라는 용어가 기재될 필요가 없다.

Article 27 Clean Transport Document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무사고 운송서류)

A bank will only accept a clean transport document. A clean transport document is one bearing no clause or notation expressly declaring a defective condition of the goods or their packaging. The word "clean" need not appear on a transport document, even if a credit has a requirement for that transport document to be "clean on board".

은행은 단지 무고장 운송서류만 수리한다. 무고장 운송서류는 상품 또는 포장의 하자상태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조항 또는 부기가 없는 것을 말한다. "무고장"이라는 단어는 비록 신용장에서 운송서류가 "무고장 본선적재"일 것을 요구하더라도 운송서류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 ① 동일한 운송을 위하여 동일한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경우 본선 선적을 증명하는 복수의 운송서류에 비록 각각 다른 선적일이나 선적항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목적지를 명시하고 있으면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Article 31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b. A presentation consisting of more than one set of transpor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commencing on the same means of conveyance and for the same journey, provided they indicate the same destination, will not be regarded as covering a partial shipment, even if they indicate different dates of shipment or different ports of loading, places of taking in charge or dispatch.

- ②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바지에 선적되었음이 선하증권에 증명된 때에는 환적될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선하증권도 수리될 수 있다.

Article 20 Bill of Lading

c. i. A bill of lading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bill of lading.

ii. A bill of lading indicating that trans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shipment, if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 container, trailer or LASH barge as evidenced by the bill of lading.

③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 원본 전통(full set)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수익자는 송화인용 원본만을 제시해도 된다.

Article 23 Air Transport Document v. be the original for consignor or shipper, even if the credit stipulates a full set of originals.
--

7. 2010년에 개정된 IMF의 국제수지통계 편제기준(BPM6)에 따를 때, 각 사건과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국제수지계정 항목을 옳게 짝지은 것은?

[illegible]

해설 : ‘단기 외국인 노동자 국내유입의 증가’는 국내에 단기(1년 미만)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영향을 준다. 즉 ‘급료 및 임금’ 항목에 해당하므로, 국제수지 계정 항목 중 ‘본원소득수지’에 영향을 준다.

㉔ '○○전자의 국제특허소송 패소로 과징금 부담'이 있는 경우, 국제수지 계정 항목 중 '이전 소득수지'의 '기타 부문'에 영향을 준다.

	A국	B국
--	----	----

X재	2	1
Y재	3	2

- ① A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frac{1}{2} \leq P^w \leq \frac{2}{3}$ 이다.
- ②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geq \frac{2}{3}$ 이다.
- ③ A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geq \frac{3}{2}$ 이다.
- ④ B국은 X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P^w \leq \frac{1}{2}$ 이다.

8. 정답 ①

해설 : B국과 비교한 A국의 노동투입량(생산비) 비율을 보면, X재는 2/1이고, Y재는 3/2이다. 그러므로 A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반대로 B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즉 A국은 Y재를 특화생산하고, B국은 X재를 특화생산하여 무역거래를 할 때, 양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이것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비교우위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양국 간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때, 실제 교역조건은 밀(John Stuart Mill)의 상호수요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밀의 상호수요설(상호수요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두 상품의 국내교환비율이 양국 사이의 교역 가능성을 결정하며, 국제교환비율에 따라 교역당사국 사이에 무역이익이 배분된다. '세계시장에서의 X재의 상대가격(P^w)의 범위'는 B국이 X재를 특화생산하여 수출할 때, 양국의 X재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결정된다. Y재에 투입된 노동투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한 A국의 X재 국내교환비율은 2/3이고, B국의 X재 국내교환비율은 1/2이다. 그러므로 '세계시장에서의 X재의 상대가격(P^w)'는 이 두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결정된다. 즉, $\frac{1}{2} \leq P^w \leq \frac{2}{3}$ 이다.

9.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신용장에 개별품목 또는 포장단위로 수량을 명시하지 않고 환어음 발행 총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5% 이내의 수량 과부족은 허용된다.
- ② FAQ 조건은 외관상 잠재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출자가 수입지에서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 ③ GMQ 조건과 더불어 곡물류 거래에 활용되는 TQ 조건은 대표적인 양륙지 품질조건에 해당한다.
- ④ 신용장 거래에서 할부선적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하나의 할부선적분이 허용된 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면 모든 할부 선적분에 대해 신용장의 효력은 정지된다.

9. 정답 ①

해설 : 만약 신용장이 수량을 포장단위 개수 또는 개개품목의 개수로 명시하지 않고, 환어음 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상품 수량의 5% 과부족 편차가 허용된다.

Article 30 Tolerance in Credit Amount, Quantity and Unit Prices

- b. A tolerance not to exceed 5% more or 5% less than the quantity of the goods is allowed, provided the credit does not state the quantity in terms of a stipulated number of packing units or individual

items and the total amount of the drawings does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credit.

- ② '외관상 잠재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출자가 수입지에서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하는 조건'은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판매적격품질조건)이다.
- ③ TQ(tale quale) 조건은 매도인이 선적시의 품질은 보증하나 양륙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선적지 품질 조건'이다.
- ④ 신용장 거래에서 할부선적이 이루어질 경우 어느 하나의 할부선적분이 허용된 기간 내에 선적되지 못하면 '선적되지 못한 그 할부분과 그 이후의 모든 할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즉 이전에 선적된 부분까지 무효(신용장의 효력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Article 32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

If a drawing or shipment by instalments within given periods is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any instalment is not drawn or shipped within the period allowed for that instalment, the credit ceases to be available for that and any subsequent instalment.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980)상 승낙(accept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추가, 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이 된다.
- ②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 ③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10. 정답 ②

해설 : 승낙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그러나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승낙기간은 '최초의 영업일까지' 연장된다(CISG 제20조).

- ①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추가, 제한, 기타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반대 청약이 된다(CISG 제19조).
- ③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알리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CISG 제21조).
- ④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CISG 제22조).

11.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무역 지표는?

$$\frac{\text{수출상품가격지수}}{\text{수입상품가격지수}} \times 100$$

- ① 수출특화지수
- ② 현시비교우위지수
- ③ 산업내무역지수
- ④ 상품교역조건지수

11. 정답 ④

해설 : 상품교역조건(commodity terms of trade)이란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변화율을 통해 무역이익을 판단하는 교역조건으로, 순교역조건(net terms of trade)이라고도 한다. 다음 산출식에서 N은 상품교역조건을, ' P_{X1} / P_{X0} '은 수출가격변화율을, ' P_{M1} / P_{M0} '은 수입가격변화율을 의미한다. 수출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면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수출가격변화율이 수입가격변화율을 초과할 때에도 수출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된다.

$$N = \frac{P_X}{P_M} = \frac{(P_{X1}/P_{X0})}{(P_{M1}/P_{M0})} \times 100$$

P_X : 수출가격지수, P_M : 수입가격지수

P_{X0} : 기준연도의 수출가격, P_{M0} : 기준연도의 수입가격

P_{X1} : 비교연도의 수출가격, P_{M1} : 비교연도의 수입가격

12. 펄뮤터(Perlmutter)가 분류한 국제화 진입방식에 따른 기업의 유형이 아닌 것은?

- ① 본국시장중심형(ethnocentric)
- ② 자원시장중심형(resourcentric)
- ③ 현지시장중심형(polycentric)
- ④ 세계시장중심형(geocentric)

12. 정답 ②

해설 : 펄뮤터(H. V. Permuter)는 다국적기업을 경영자의 태도(본국중심주의, 현지중심주의, 세계중심주의)를 중시하여 '세계적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구분	본국중심주의 ethnocentrism	현지중심주의 polycentrism	세계중심주의 geocentrism
조직구조	본국의 본사 조직은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으나, 해외의 자회사는 단순한 구조임	현지의 자회사가 다양하고 서로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함	본사 및 수개의 자회사간 상호연관성이 높고 복잡하게 연결됨
의사결정권	본사에 집중되어 있음	현지 경영자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함	본사와 자회사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짐

13. 기업의 라이선싱(licens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선싱은 잠재적 해외경쟁자에게 회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래

의 경쟁자를 만들 위험이 크다.

- ② 라이선싱은 해외시장에서 필요한 제조, 마케팅 그리고 전략에 대한 긴밀한 통제를 하기 쉽다.
- ③ 라이선싱은 무역 제한이나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④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13. 정답 ②

해설 : 국제라이선싱(licensing)이란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방식의 1차적인 방법으로서, 한 국가의 기업(라이선서)이 다른 국가의 기업(라이선시)에게 특허, 노하우, 등록상표 기타 무형자산을 공여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계약방식이다. 라이선싱은 단순히 기술 등을 제공하는 계약방식으로서 '해외시장에서 필요한 제조,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긴밀한 통제'를 할 수는 없다.

1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느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보수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는 감소한다.

- ① 헉셔 - 올린(Heckscher-Ohlin) 제1정리
- ② 스톨퍼 - 사무엘슨(Stolper-Samuelson) 정리
- ③ 립진스키(Rybczynski) 정리
- ④ 레온티에프(Leontief) 역설

14. 정답 ②

해설 : 사무엘슨(Samuelson)의 '헉셔-올린 제2명제(요소가격균등화 이론)'는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같아진다는 이론이다. 이후 스톨퍼(Stolper)와 사무엘슨(Samuelson)은 헉셔-올린 제2명제에 입각하여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미국이 낮은 임금밖에 지불하지 못하는 나라와 자유무역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 노동자의 실질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고임금 국가인 미국과 저임금 국가인 중국이 교역을 할 경우, 미국은 자본집약재 생산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자본의 수요는 증가하고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중국은 노동집약재의 생산에 집중하고 자본집약재의 생산은 감소하면서, 양국의 노동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균형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은 무역으로 인해 소득분배 악화가 초래되는데, 이때 피해를 보는 노동자 집단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는 1941년 스톨퍼와 사무엘슨이 '보호무역과 실질임금'이라는 논문을 통해 주장한 핵심내용으로, 자유무역이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헉셔-올린 무역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15. 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이 본사와 자회사 상호 간에 동종 또는 이종 통화표시 채권·채무를 차감한 후 차감 잔액만큼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환위험 관리전략은?

- ① 가격정책(pricing policy)
- ② 선불과 지연(leading and lagging)
- ③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 ④ 네팅(netting)

15. 정답 ④

해설 : 네팅(netting)은 일정기간 동안의 채권·채무를 그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누적시켰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서로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내부적(대내적) 환리스크 관리기법 중의 하나이다.

16.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설정 방식은?

- ① 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
- ② 원가가산가격(cost-plus pricing)
- ③ 스킴가격(skimming pricing)
- ④ 단수가격(odd pricing)

16. 정답 ③

해설 : 새로운 제품의 가격을 정할 때에는 초기 출시 가격을 둘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하나는 초기에 고가로 출시하고 점차 가격을 내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가격으로 출시하였다가 이후 점차 인상하는 방법이다. 이 중 '초기에 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을 낮춤으로써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는 가격설정 방식'을 스킴 가격(skimming pricing)이라 한다. 이 가격전략은 저가의 대체품들이 출시되기 전 빠른 시간 안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다. 초기 고가격에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들의 유보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출시한 뒤, 가격을 내려 소비자층을 확대하는 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으로 시장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때 유효한 전략이며 경쟁사가 모방이 어려울 정도로 해당 제품의 기술력이나 차별성이 뛰어날 경우, 혹은 브랜드 충성도가 있을 경우 이 전략이 적합하다.

- ① 스킴 가격에 대비되는 가격설정 방식에는 시장침투가격(penetration pricing)이 있다. 시장침투가격이란 낮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시장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려는 가격 설정방식이다. 신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때 초기에는 낮은 가격으로 제시한 후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면 가격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도입기 저가전략이라고도 한다.
- ② 원가가산가격(cost-plus pricing)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에 일정한 이익률을 고려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제품의 원가와 이익률만을 이용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부 자료만으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의 수요 상황, 경쟁사의 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 ④ 단수가격(odd pricing)이란 제품 가격을 설정할 때 가격의 끝자리를 단수로 표시하여 정상 가격보다 약간 낮게 설정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예를 들어 정상가격이 1만원인 제품의 판

매가격을 9,900원으로 표시하여 가격대를 변동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17. Incoterms® 2010 규칙의 분류이다. ㉠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In the second class of Incoterms® 2010 rules, the point of (㉠)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 hence the label “sea and inland waterway” rules. (㉢), FOB, CFR and CIF belong to this class. Under the last three Incoterms rules, all mention of the (㉣) as the point of delivery has been omitted in preference for the goods being delivered 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This more closely reflects modern commercial reality and avoids the rather dated image of the risk swinging to and fro across an imaginary perpendicular line.

	㉠	㉡	㉢	㉣
①	shipment	carriers	FCA	premises
②	delivery	carriers	FCA	premises
③	shipment	ports	FAS	ship's rail
④	delivery	ports	FAS	ship's rail

17. 정답 ④

해설 : Incoterms 2010에서는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복합운송조건(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이란 운송수단의 종류와 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며, 해상운송조건(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이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복합운송 조건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지정장소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지정장소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해상운송 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지정선적항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포함인도조건	지정목적항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지정목적항

제시된 자료에서 'In the second class'란 'sea and inland waterway'라는 표제가 붙은 FAS, FOB, CFR, CIF 조건을 말한다. 이 해상 운송 조건에서 인도 지점(the point of delivery)은 항구(ports)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the last three Incoterms rules'란 FAS 조건을 제외한 FOB, CFR, CIF 조건을 말하는데, Incoterms 2000에서는 이 세 조건의 인도지점을 본선 난간(ship's rail)으로 규정하였으나, Incoterms 2010에서는 현실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여 본선 적재(on board)된

때에 인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8.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항공화물운송장은 유통성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항공화물운송장은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이다.
- ④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18. 정답 ②

해설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은 '운송계약 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이 되고,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도 되지만, 기명식으로 되어 있어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이 아니면 해당 화물을 인수받을 수 없는 비유통성 증권이다.

19. 무역대금 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은(는)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으로 (㉣)에 (㉡)의 지점이나 대리인 또는 지정은행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	㉡	㉢
①	CW0	수출지	매수인
②	CAD	수출지	매수인
③	COD	수입지	매도인
④	OA	수입지	매도인

19. 정답 ②

해설 :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인도결제방식)는 수입상이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출지(수출국)에 매수인(수입자)의 지점이나 대리인 등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20.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상의 양도가능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용장 양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1수익자의 부담이다.
- ② 신용장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 ③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더라도 신용장은 2인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없다.
- ④ 신용장이 양도가능하기 위해서는 'assignable', 'divisible' 등의 용어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야 한다.

20. 정답 ③

해설 : 신용장은 만약 분할어음 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었다면 한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부분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

Article 38 Transferable Credits 제38조 양도가능 신용장

d. A credit may be transferred in part to more than one second beneficiary provided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 are allowed.